

광주·전남 경제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 급반등

1월, 광주 76.4%·전남 77.7% 크게 상승

입주율은 낮아 회복 체감까진 시간 필요

광주·전남 지역의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장기간 침체했던 광주·전남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광주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6.4로 전월(53.8) 대비 22.6p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남도 66.6에서 77.7로 11.1p 상승하며 두 자릿수 반등을 기록했다. 광주는 5대 광역시 중, 전남은 도 지역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의 입주전망지수 상승은 전국 평균 상승폭(9.6p)을 웃도는 수준으로, 비수도권 가운데서도 회복세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평가된다. 입주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주택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전남의 입주전망지수는 기준인 100에 못 미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급락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 진입'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지수 반등의 배경으로는 비수도권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과 금융 여건 완화 기대가 꼽힌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의 미분양 해소 기대가 입주 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영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 움직임도 잔금 납부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광주·전남 주택시장은 지난해까지 고금리와 거래 위축, 미분양 누적 등의 영향으로 입주 여건이 빠르게 악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광주의 입주전망지수는 50선 초반까지 떨어지며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행인 점은 올 들어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사업자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실제 입주율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전라권 아파트 입주율은 50.8%로 전월(69.0%) 대비 큰 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입주율(61.2%)은 물론 수도권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 대출 미확보(28.6%), 기준 주택 매각 지연(24.5%), 세입자 미확보(18.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입주전망지수 상승은 긍정적 신호임이 분명하지만, 침체 기간이 길었던 만큼 체감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책 효과와 금융환경 개선이 실제 입주율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택 수요 회복과 거래 정상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대규모 공급 부담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미분양 해소 속도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가 지역 주택시장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조업 35% "경기 개선 전망"

완만한 회복이나 경제 국면 예상

“정부 선제 통상 대응·지원 정책 시급”

오랜 경기 침체를 겪어온 광주·전남 제조 기업들 사이에서 모처럼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전남 소재 제조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35%는 올해 경기 흐름을 '전년보다 소폭 개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년과 비슷'(35%), '소폭 둔화'(19.2%), '뚜렷한 악화'(10.0%)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긍정한 경기 반등보다 완만한 회복 또는 정체 국면을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수 목표치에 대해서는 '전년 실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고 수출 목표 역시 '전년 수준'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다수 기업이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영 계획의 핵심 기조에 대한 질문에는 72.5%가 '안정(유지) 경영'을 선택했으며 '확장(성장) 경영'은 18.3%에 그쳤다. 경영 계획 수립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경기·수요 전망'(49.2%)이 가장 높았고 '비용·수익성 요인'(31.7%)이 뒤를 이었다.

경제 성장의 긍정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와 금융 여건 완화'가 4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내 기업 투자 확대'(32.5%), '수출 호조 지속'(30.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유가·원자재가 변동성'(45.8%)과 '고환율·변동성 확대'(40.0%),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35.8%) 등이 상위를 차지해 대외 여건 악화가 지역 제조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국내 투자 촉진 정책'(44.2%)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 활성화 정책'(38.3%),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37.5%), '환율 안정화 정책'(36.7%) 등의 순이었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제조 기업은 세계 통상 불확실성과 원가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확장보다 내실 경영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통상 대응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 지원이 지역 경제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주·전남 제조 기업 120개사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업은 대·중견 기업 10%, 중소기업 90%였다. 세부적으로 전자제품·통신이 17.5%, 자동차·부품이 24.2%, 기계·장비가 18.3%, 철강이 2.5%, 전기 장비가 0.8%, 배터리가 0.8%, 화학·고무 플라스틱이 6.7%, 제약·의료 바이오가 8.3%, 섬유·의류가 1.7%, 식음료가 10%, 골재 등 기타 기업이 9.2%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탑승 카운터,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

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탑승 수속 카운터를 옮긴다.

2026년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 제2여객터미널 이전

새로운 장소에서도 변함 없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발зал 체크인 카운터에 설치된 전광판에 아시아나항공 제2여객터미널 이전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탑승 수속 카운터를 옮긴다.

/연합뉴스

고환율에 관세청도 칼 빼다…수출기업 불법 외환거래 집중점검

신고-지급 격차 큰 1138개 기업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전방위로 관리·단속한다.

고환율 흐름을 악용해 일부러 수출입 대금의 지급·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노리는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예방·증명·징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작년 1~11월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2900억달러(약 427조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격차가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 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작년 관세청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카카오뱅크 18일 새벽

카드 거래 일시 중단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점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17일 밤 11시 50분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시간에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외 온·오프라인 결제, 자동화기기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등 체크카드 및 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에 중단된다.

다만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폐기 화폐 쌍으면 에베레스트산 17배

금리 하락에 수요 늘어 환수 감소

지난해 3억6000만장이 넘는 화폐(지폐+주화·장 단위로 통일)가 훼손 또는 오염돼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됐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순상화폐 폐기·교환 실적'에 따르면 작년 폐기된 순상화폐는 모두 3억6401만장, 액면가로는 2조8404억원어치로 집계됐다.

가로로 이으면 총길이가 4만403km로 지구 한 바퀴(약 4만km)를 돌고도 남고, 쌍으면 에베

레스트산(8848m)의 17배에 이르는 높이(14만 7017m)다. 작년 폐기 화폐 규모는 2024년(4억 7489만장)과 비교해 1년 새 23.3%(1억1088만장) 줄었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폐 환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 2억9518만장(액면가 2조8286억원)과 주화(동전) 6882만장(118억원)이 폐기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 1.3~1.4% 오른다

치솟는 손해율에 5년만에 인상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2월 11일 책임 개시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4% 인상한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2월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률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2월 18일, 메리츠화재는 2월 21일부터 각각 1.3% 인상에 나선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연이어 인하해왔으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5년 만에 인상으로 돌아섰다.

대형 손보사 대부분은 당초 2.5%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융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대로 조정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 수준으로 90%를 웃돌았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작년 동기보다 3.8%포인트(p) 올랐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골드바 4종 설 선물로 내놓은 GS25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프리미엄 선물과 가성비로 상품을 이원화한 GS25는 '붉은 말 골드바 4종'과 999만원 '5대 사또 2016 빈티지 세트' 등을 출시했다. GS25 편의점에서 모델이 골드바와 목걸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제공)

코스피 67.85P 올라…사상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다시 장중,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4692.64로 전일 대비 67.85포인트(p) 오른 채 장을 마감했다. 전날 종가 기준 사상 최초로 4600선을 넘어서선 뒤 하루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도 4693.07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부터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상승세에 도중에 슴 고르기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 주세였다.

코스피 상승은 기관 투자자가 견인했다. 투자자 별로 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각각 9989억원, 160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투자자는 9459억원을 순매수했다.

종목별로는 현대차그룹주의 주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주가는 10.63% 오르

며 40만원선을 넘어섰고, 현대모비스(14.47%), 기아(5.18%) 등도 모두 올랐다.